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5년 2월

선교편지 제 74 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디고스 지역에서 학원 사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마띠 고등학교'의 모습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닥과 지붕만 겨우 갖추어서 주변이 흰히 다 보이는 교실만 있던 학교가 교실 벽이 세워지고, 도서실과 컴퓨터를 갖춘 학교로 변화 되더니, 금년에는 6개의 현대식(?) 교실까지 완공하여 학교로서 전혀 손색이 없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학생 수도 초기에는 250여명에 불과하였는데, 이제는 거의 500여명의 중형 학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부속' 학교의 의미가 있었던 'Annex'라는 단어도 학교 명칭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어엿한 독립 학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익핏' 고등학교와 '발라박' 고등학교는 아직도 큰 변화가 없이 정겨운(?) 옛 모습 그대로인데, 디고스 내에서 제일 늦게 설립된 마띠 고등학교의 변화는 과히 놀랄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띠 고등학교의 학원 사역은 주어진 환경에 따라 사방이 다 열려있는 공간에서 의자에 칠판을 걸쳐 놓고 학생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것으로 시작했었습니다.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었기 때문에 프로젝터는 물론이고 스피커 사용도 어려워서, 좋은 찬양이 있어도 들려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열악한 환경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디고스 지역 선교의 더 큰 꿈을 꾸게 하셨고, 이 일을 위하여 다른 일 보다도 가장 먼저 마띠 고등학교의 교실 벽을 세우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거의 1년간의 교실 벽 공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마침내 교무실을 포함하여 10개의 교실이 완성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다른 수업에 서로 영향을 받지않고 전교생이 각각의 '교실'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큰 기쁨을 맛보게 되었고, 선생님들도 머물러 수 있는 교무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 학원 사역도 '실내'에서 진행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띠 고등학교의 학원 사역을 시작하면서, 고등학교 전교생에게 영어 및 현지어로 번역된 성경을 전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마저도 학생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대물림을 해야 할 정도로 '책'이 매우 귀한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성경책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라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 '도서실'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도우심으로 2년전 뉴욕 예일 교회로부터 약 5,000여권의 책과 15대의 컴퓨터를 지원 받았고, 이와 동시에 지역 주정부가 도서실로 사용할 수 있는 교실을 세워 주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시골 고등학교에 정말 꿈같은 도서실과 컴퓨터실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마띠 고등학교의 도서실과 컴퓨터가 이 지역의 뉴스 거리가 되었고, 지역 명소로서 정치인들의 방문지가 되었고, 또한 제법 먼 지역에 사는 학생들도 명문(?) 마띠 고등학교로 전학을 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변화이고, 축복인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학원 사역도 특별하게 새로 세워진 도서실에서 아주 쾌적하게 진행할 수 있는 큰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띠 고등학교의 이러한 외적 변화도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만, 지난 2년 동안 저희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한 졸업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인근 대학교로 진학을 하게 된 일도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를 가사로 졸업한 이후에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장학 사역은 직접적으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에게 큰 유익이 있지만, 저희가 감당하는 학원 사역의 신뢰성을 높이는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문들이 인근 지역에 퍼지게 됨에 따라 타 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찾아와서 장학금을 문의하고, 또한 저희 학원 사역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마띠 고등학교의 큰 진보는 주위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마띠 고등학교는 '세계 빈곤 퇴치와 교육'을 주 사업으로 하는 호주의 비정부 민간 단체 (NGO)로부터 6개의 교실을 신축할 수 있는 큰 금액의 건축비를 지원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이곳의 학교를 포함한 많은 기관들은 정치를 하는 정당들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마띠 고등학교는 정치적으로 현재의 우세 정당이 아닌 열세 정당과 밀접하기 때문에 우세 정당과 밀접한 다른 학교들을 제쳐두고 그러한 외부의 큰 후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지역의 큰 뉴스 거리가 되기에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호주 비정부 민간 단체의 도움을 받아 지금까지의 낙후된 모습의 교실과는 어울리지 않는 잘 구비된 교실들을 완공하고, 금년부터 더 좋은 시설에서 더 많은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학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희 학원 사역도 더 큰 힘을 얻어서, 금년부터 새로운 교실에서 새로 부임한 현지 목사님 부부와 함께 약 50여명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마띠 고등학교의 변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익핏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만날 때마다 익핏 지역에서 동일한 학원 사역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띠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입 버릇처럼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마띠 고등학교로 보내주셔서 이 일을 이루셨다고 말씀해 왔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분에 넘치는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통하여 디고스의 복음화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4)**



대한민국 외교부는 지난 1월 25일자로 필리핀 민다나오 전역에 '흑색 특별 여행 경보'를 발표

하고, 모든 한국인에 대하여 '즉시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특별 여행 경보는 '해당 지역을 방문하지 않을 것'과 '이미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한국인은 즉시 안전한 국가나 지역으로 철수할 것'을 권고하는 최상위의 여행 경계령입니다. 또한 민다나오 지역외의 필리핀 각 지역도 적색 경보(철수 권고), 남색 경보(여행 유의)등으로 여행 경보 단계를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곳을 방문하는 한국인의 수가 급감하고, 공항 대합실에도 서둘러서 떠나는 한국인으로 북적인다는 현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행 경보가 발령된 배경에는 필리핀 내의 한국인에 대한 각종 피랍, 강도, 살인등의 강력 사건이 매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의 문화, 경제가 필리핀 사람들로 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돈 많은 한국 사람이라는 선입견이 이러한 강력

사건의 대상이 되기도 한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일했던 필리핀인들이 한국에서의 나쁜 경험을 안고 귀국하여 좋지 않은 인식이 전달 되기도 하고, 또한 필리핀을 방문한 일부 한국 남자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하여 한국계 혼혈 아이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까닭에 한국인이 쉽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곳에서는 한국 사람을 '걸어 다니는 ATM (현금 자동 입출금기)'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니,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먹잇감으로 보일런지 짐작 할만합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의 필리핀 내 인구 대비 살인 사건 발생 비율이 체류 외국인 수가 월등히 많은 중국인이나 미국인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고, 심지어 필리핀 자국민들보다도 두 배 정도가 높은 비율로 사고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다나오를 '특별 여행 경보 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즉시 대피령'을 내리기 까지의 배경에는 조금 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한국인 관련 대부분의 강력 사건은 민다나오 외의 다른 지역에서 더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민다나오 지역에만 이렇게 강한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하여 다른 이유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다나오는 매우 독특하게도 필리핀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과격 이슬람 세력이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자체 독립을 요구하며 정부군과 항상 크고, 작은 내전으로 대치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작년 2014년, 50년만에 처음으로 이슬람 세력과 정부군 평화 협정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었고, 낙후된 지역 개발 계획도 추진하는 등 평화적인 분위기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중에, 민다나오의 '마긴다나오'라는 곳에서 특수 부대 소속 정부군 50여명이 이슬람 세력에 의하여 무참히 살해되는 일이 새벽에 발생하고, 이와 때를 같이 하여 몇 시간 뒤에 한국의 외교부로부터 한국인에 대한 '즉시 대피령'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분쟁이 발생한 지역은 디고스에서 약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으로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분류 되던 곳입니다. 20여일이 지난 지금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화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번 일로 인하여 꼭 이슬람 지역이 아니더라도 분쟁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일어 날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현지 군대가 발표한 '적색 경보'령은 저희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유효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롬 8:35)

기도 요청

1. 건축될 교회를 위하여
2. 건축에 참여하는 현지인들 위하여
3. 교회를 기다리는 띠구만 주민들을 위하여
4. 건축과 교회 운영에 필요한 모든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5. 부족한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